

공유 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Study on Difference in Perception of Shared Economy and Public Domain Works

민지애*, 전승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영상디자인학과**

Jiae Min(jjaemin@kookmin.ac.kr)*, Seung Kyu Jeon(skjeon@kookmin.ac.kr)**

요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재 문화, 예술 부문에서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과 관련된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공유마당, 공공누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유저작물 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저작물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수요자 측만이 아니라 저작물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공유경제 및 공유 저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공유저작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공급자, 수요자간 인식 차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공급자 수요자 모두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공급자 측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공유저작물, 저작권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의 확대가 기존 저작권 공급자들의 이해를 보장하는 형태가 되고, 적절한 보상 등이 사회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중심어 : | 공유경제 | 공유저작물 | 저작권 | 인식 차이 |

Abstract

With Recently in art and culture domains, there's rising controversy over shared economy and public domain works. The government is introducing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Gongumadang and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program to expand the grounds for public domain works. In order to promote and facilitate the use of public domain works,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how the providers who create and provide the public domain works, as well as the users, perceive shared economy and public domain works. However, preceding studies usually put emphasis on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shared economy and show limitation of not discussing providers' perception on shared economy and public domain work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o see if there's a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the consumers/users and the providers who owns the copyright of public domain work.

■ keyword : | Sharing Economy | Public Domain Works | Copyright | Perception Difference |

I. 서론

기존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정보통신,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현대 경제에서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확대시켰다. 공유경제는 협력적 소비의 경제 방식으로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1], 우버, 에어 비앤비 등을 대표로 하는 공유경제는 소유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유 경제의 활성화는 기존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모두의 복지를 보다 활성화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가 예술, 문화 부문에 적용되면서 공유저작물과 관련된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공유저작물 제도는 공유 경제를 문화, 예술 분야에 접목시킨 것으로, 원래 사적 재산 영역인 저작물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공유마당, 공유 누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유저작물 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 공유 활동은 사람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2].

그런데 공유저작물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수요자 측만이 아니라 저작물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공유경제 및 공유 저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도 중요하다. 공유저작물은 자기 저작물을 공유저작물로 제공하는 공급자와, 그 공유저작물을 이용하는 수요자간의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기 저작물을 공유저작물로 제공하는 공급자가 공유 경제, 그리고 공유 저작물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는 공유저작물의 활성화에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장점, 필요성,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만, 공유저작물 공급자들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그리고 공유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지니고 있는 공급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저작물 공급자들이 공유저작물 수요자들에 비해 어떠한 인식 차

이를 지니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공유저작물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공유경제, 그리고 공유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공유경제와 공유저작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간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의 니즈에 보다 합당한 공유저작물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공유경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공유의 경제(Economy of Communion)라고도 불리우는데,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경제시스템으로 현재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2008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개인이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고, 그 물건은 소유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공유경제는 어느 한 개인이 소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3]. 상품, 서비스 등을 개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빌려 쓸 수 있고, 또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공유경제 개념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대안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4].

이러한 공유경제는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인터넷은 기본적인 공유나 나눔에 대한 가치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공유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무대와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5]. 공유경제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도 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혁신의 경제시스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사회혁신을 이끄는 공유경제 시스템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기로 유발되고, 1차 목표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6]. 또한 공유경제 기업은 협력적 소비에 기반한 사회적 마케팅을 활용하여 경제성장 전략, 재분배 전략, 대규모 해외원조, 인구증가 통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대신 변화될 행동에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7].

공유경제의 가장 큰 특성은 개인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인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일치의 정신 혹은 관계의 연결망에 대한 소속감으로부터 발현된다[8].

2.2 공유저작물

공유 경제는 향후 경제 성장 및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하에서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정책적 지원 사례로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 마당의 공유저작물 서비스이다[9]. 공유 저작권은 공유 경제를 저작권 측면에서 시현하고자 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문화, 예술 부문에서 중시되는 저작권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독점적인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유경제는 개인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저작물은 저작권 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공유저작물의 주요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정보공유와 저작권

현대 사회에서 정보공유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된 정보는 다양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되며 공유된 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 새로운 정보로 재생산되기도 한다[10].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보제공을 위한 풀(pool)이 없다면 공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활발한 정보교류가 일어날 수 없다. 정보공유를 위해 형성되는 방대한 정보공유 풀(pool)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 정보탐색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이고 정보이용 대상자의 목적 달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는다[11]. 그리고 정보 공유는 만족도, 신뢰도, 관계 몰입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관계 품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12].

정보공유와 이를 위한 풀(pool)의 증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공유는 창작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연결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정보공유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보제공자 혹은 정보공유자의 저작권이 강화되면 정보이용자가 정보공급에 제한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가치를 누릴 수 없게 된다. 또한 그만큼 정보이용자의 재정보공유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더불어 공공의 이익도 감소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저작권이 약화 될 경우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내는 활동이 저하됨으로 인해 국가적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정보공유와 저작권 간의 관계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가 활발히 일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다. 현재 저작권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이다[13].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의 경우 원저작물과 복제저작물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정보공유의 주체도 익명성을 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저작권과 정보공유의 문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2.2.2 공유 저작물에 대한 정책

공유 저작물이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연구 보고서,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의 저작물로 일반사용자가 저작권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공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공유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자의

허가로 인해 공유되는 저작물,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자료 등 자유이용이 허가된 저작물, 저작자가 기부한 저작물 등이 공유저작물로 논의되기도 한다[14].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저작물의 사용과 공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 공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공유저작물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정부는 공유저작물 활용 증대를 위해 공유마당 및 공유누리 등과 같은 공유저작물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공유마당은 정부가 디지털화 된 저작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공유된 저작물이 창조자로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 및 공유 저작물 유통체계이다[15].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2년 11월부터 [공유마당]이라는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유마당은 1996년에 미국에서 생겨난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라는 인터넷 정보공유 홈페이지와 유사하여 한국판 인터넷 아카이브로 불리우기도 한다[16]. 인터넷 아카이브는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들을 디지털화 하여 공익의 차원에서 무료로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이다.

공유마당은 국내의 공유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한 만료된 저작물이나 사회적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보유의 저작물, 기증된 저작물, 공공기관의 공공 저작물 등과 같은 공유 저작물을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누리는 공공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명칭인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명칭으로 공공 저작물의 민간개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7].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공공 기관이 창작한 공공저작물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된 공공 저작물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공공저작물 정책을 통하여 정부는 문화, 예술 분야에서 공유 경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공공저작물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III.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고자 한다.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은 저작물의 공적인 이용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공유 경제, 그리고 공유 저작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공유 경제 및 공유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유 경제 및 공유 저작물과 관련된 주요 사회 이해집단은 저작권을 공급하는 측과 저작권을 수요하는 측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권에 대해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 수요자 측면에서만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공유저작물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공유저작물 활성화에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요자 측의 인식만이 아니라 공급자 측의 인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수요자 및 공급자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공유저작물간에는 원칙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가 목적, 공유저작물 활성화는 수단 중 하나라는 성격을 가진다. 공유경제와 공유저작물을 같이 살펴보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등을 논증할 수 있다.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할 하지만 수단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인지, 목적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단에 대해서도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등에 대한 추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공유 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한다. 설문조사 대상은 창작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저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창작 분야의 생산자, 그리고 저작권 작품 등을 이용하는 창작 분야의 수요자이다.

설문 조사는 2015년 5월 한 달 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설문은 5점 리카트 척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24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설문 대상자의 주요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요인

구분		빈도	%
성별	남	64	28.6
	여	160	71.4
	계	224	100
연령	20세 이하	65	29.0
	21-25	112	50.0
	26-30	22	9.8
	31-35	8	3.6
	36-40	6	2.7
	41세 이상	10	4.5
	무응답	1	0.4
	계	224	100

IV. 분석 결과

4.1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

4.1.1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

먼저 공유 경제에 대한 인지 여부를 저작권 수요자와 공급자 간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비교 (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분산 분석 (F값)	t분석 (단축)
공유 경제에 대한 인지	수요자	25.7	37.8	18.9	17.6	0.0	0.0	2.3	2.341	-1.530*
	공급자	20.0	34.7	20.7	20.7	3.3	0.7	2.5		
공유 경제의 긍정성	수요자	1.4	10.8	54.1	23.0	10.8	0.0	3.3	0.537	-0.733
	공급자	1.3	9.3	43.3	39.3	6.0	0.7	3.4		
공유 경제의 필요성	수요자	1.4	6.8	45.9	39.2	6.8	0.0	3.4	0.001	0.026
	공급자	1.3	8.7	40.7	43.3	5.3	0.7	3.4		
공유 경제 향후 증가 여부	수요자	2.7	17.6	29.7	41.9	8.1	0.0	3.4	0.014	0.120
	공급자	0.0	21.3	31.3	38.7	8.0	0.7	3.3		

주: *: 유의수준 0.1 이하, **: 유의수준 0.05 이하, ***: 유의수준 0.01 이하

공유 경제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평균이 2.3, 공급자의 평균은 2.5 였다. 5점 리카트 척도에서 2점대는 부정적인 응답을 의미한다. 즉 저작권 수요자 및 공급자들은 공유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정책이 수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작권 수요자 및 공급자들은 공유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긍정성, 그리고 공유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3-3.4값을 보여주어, 공유경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유경제의 긍정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나 공급자나 모두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는 공급자 측이 다소 수요자보다 더 많이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공유경제가 향후 증가할 것인가란 문항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3.4, 공급자가 3.3으로 수요자, 공급자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부문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4.1.2 공유 경제와 자본주의

이론적으로 볼 때 공유경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충돌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개인 사유 재산을 중시하는데 반해, 공유경제는 공공 소유를 중시한다. 이러한 공유경제와 자본주의 간 관계에 대해 저작권 수요자와 공급자 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유경제와 자본주의 간 조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수요자는 3.4, 공급자는 3.5로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공유저작물 수요자와 공급자는 모두 공유경제와 자본주의가 상호 양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1 공유경제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 이후에, 공유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문이 제공되었다. 따라서 공유경제에 대해 처음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유경제에 대해 긍정성 여부에 대해 응답이 가능하였다.

표 3. 공유 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교 (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분산 분석 (F값)	t분석 (단축)
공유 경제와 자본주의 간 조화 가능성	수요자	1.4	13.5	36.5	45.9	2.7	0.0	3.4	1.250	-1.118
	공급자	0.0	15.3	28.0	48.7	7.3	0.7	3.5		
자본주의보다 공유경제가 더 중요	수요자	5.4	28.4	54.1	12.2	0.0	0.0	2.7	0.079	0.280
	공급자	2.0	44.7	36.0	14.7	2.0	0.7	2.7		

그러나 공유경제와 자본주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유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2.7 수준이었다. 즉 공유경제보다는 자본주의가 더 중요한 사회제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공유저작물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4.1.3 공유 경제와 성장 복지

공유 경제가 경제 성장 및 복지 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공유 경제와 성장 복지 대한 비교 (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분산 분석 (F값)	t분석 (단축)
공유 경제가 발달=>경제적 혜택	수요자	1.4	20.3	51.4	25.7	1.4	0.0	3.1	0.004	0.060
	공급자	1.3	26.7	40.7	27.3	3.3	0.7	3.0		
공유 경제 발달=>사회 복지	수요자	2.7	14.9	37.8	43.2	1.4	0.0	3.3	1.901	-1.379*
	공급자	1.3	13.3	33.3	44.7	6.7	0.7	3.4		

공유경제가 발달하면 경제적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3.1, 공급자가 3.0 수준으로 응답을 하였다. 5점 척도에서 3점은 중립적인 응답으로, 공급자, 수요자 모두 공유경제의 발달이

경제적 성장 등과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유경제가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3.3-3.4로 수요자, 공급자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즉 공유경제는 경제성장 등보다는 사회복지 측면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유 경제가 경제 성장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4.2 공유 저작물에 대한 인식

4.2.1 공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인식

공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공급자와 수요자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공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인식 비교 (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분산 분석 (F값)	t분석 (단축)
공유 저작물 제도에 대해 인지	수요자	5.4	28.4	41.9	18.9	5.4	0.0	2.9	0.038	-0.195
	공급자	6.0	27.3	34.7	27.3	2.7	2.0	2.9		
공유 저작물 제도의 필요성	수요자	0.0	4.1	32.4	56.8	6.8	0.0	3.7	6.186**	-2.487***
	공급자	0.0	2.0	18.0	70.0	10.0	0.0	3.9		
공유 저작물 제도의 긍정성	수요자	1.4	1.4	33.8	54.1	9.5	0.0	3.7	5.086**	-2.255**
	공급자	0.0	0.7	21.3	66.0	12.0	0.0	3.9		
향후 공유 저작물의 증가	수요자	0.0	13.5	39.2	44.6	2.7	0.0	3.4	0.485	-0.696
	공급자	0.0	13.3	32.7	50.7	3.3	0.0	3.4		

공유저작물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2.9, 공급자가 2.9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3.0 이하로서 수요자, 공급자 모두 공유저작물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유저작물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않았지만, 공유저작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요자 3.7, 공급자 3.9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유의수

준 0.01 이하 수준에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공유저작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공유저작물 제도의 긍정성에 대해서도 수요자, 공급자 모두 3.7-3.9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유의수준 0.05 이하 수준에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공유저작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공유저작물 증가 현상에 대해서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 동일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를 보이는 부문은 제도의 필요성 및 긍정성 부문이었다. 수요자 측에서 공유저작물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작품 등에 사용하기 용이하기 위해서이며, 공급자가 공유저작물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작품 등을 보다 용이하게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해서이다. 수요자가 사용할 작품을 찾는 것보다 공급자 측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큰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자의 공유저작물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성이 더 높게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4.2.2 저작권과 공유저작물 간 관계

이론적으로 볼 때 저작권과 공유 저작물 간에는 서로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저작권이 강화되면 공유저작물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과 공유저작물 간 관계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는 다음과 같다.

공유저작물을 기증할 때 이 사회에 긍정적인가란 문항에 대해서는 수요자는 3.5, 공급자는 3.9로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공급자들이 수요자들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공유저작물을 기증하는 사람은 공급자이고, 공급자가 공유저작물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유저작물 기증은 공급자가 사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의 하나로서 공급자들에게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공유저작물 제도에 대한 인식 문항에 답을 한 이후, 공유저작물 제도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다. 따라서 공유저작물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공유저작물 제도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였다.

표 6. 저작권과 공유 저작물에 대한 인식 비교(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분산 분석 (F값)	t분석 (단축)
공유저작물 기증은 사회에 긍정적	수요자	1.4	8.1	35.1	48.6	6.8	0.0	3.5	16.229 ***	-4.029 ***
	공급자	0.7	1.3	17.3	67.3	13.3	0.0	3.9		
공유저작물 기증은 저자에 긍정적	수요자	0.0	14.9	56.8	25.7	2.7	0.0	3.2	0.723	-0.850
	공급자	0.7	14.0	49.3	31.3	4.7	0.0	3.3		
공유저작물과 저작권 제도의 충돌	수요자	1.4	32.4	35.1	31.1	0.0	0.0	3.0	4.786 **	2.188 **
	공급자	6.0	44.7	26.0	22.0	1.3	0.0	2.7		
저작권보다 공유저작물 활성화가 중요	수요자	2.7	39.2	41.9	14.9	1.4	0.0	2.7	2.829 *	1.682 **
	공급자	10.7	46.0	28.0	12.0	3.3	0.0	2.5		

공유저작물 기증이 사회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았지만, 저자 자신에게 긍정적인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3.2-3.3 정도로 하락하였다.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에 대한 긍정성보다 저자 개인에 대한 긍정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공유저작물 제도와 저작권 제도가 충돌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수요자는 중립적, 공급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공급자들은 공유저작물 제도와 저작권 제도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저작권과 공유저작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 저작권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저작권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가 저작권에 더 민감한 이유는 저작권의 공급자의 권리에 보다 밀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급자에게 있어서 저작권은 자기 작품에 대한 권리 및 자신의 수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저작권과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4.2.3 공유 저작물과 보상, 활용

공유 저작물과 관련되어 논점이 되는 것은 보상 지급 여부이다. 공유저작물의 보상 및 활용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공유 저작물과 보상, 활용에 대한 인식 비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분산 분석 (F값)	(분석 단축)
공유 저작물 기증자 에게 보상 지급	수요자	2.7	6.8	20.3	52.7	17.6	0.0	3.8	0.045	-0.213
	공급자	2.0	7.3	16.7	56.7	16.0	1.3	3.8		
자기 작품 무료 기증 여부	수요자	8.1	18.9	33.8	36.5	2.7	0.0	3.1	0.162	0.403
	공급자	10.0	24.7	24.7	36.0	4.7	0.0	3.0		
보상이 줄어질 때 기증 여부	수요자	2.7	6.8	23.0	54.1	13.5	0.0	3.7	2.271	-1.507*
	공급자	4.0	4.7	12.0	57.3	22.0	0.0	3.9		

공유저작물을 기증하는 공급자에 대해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항에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 3.8대의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무료로 기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3.0-3.1의 중립적 응답을 하였고, 보상이 주어질 때 기증하겠다는가에 대해서는 3.7, 3.9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작품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이 주어진다면 자기 저작물을 공유저작물로 제공할 수있지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저작물을 공유저작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하였다.

VI. 결론

공유저작물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모두 공유경제의 필요성, 정당성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향후 공유 경제는 계속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공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내용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유저작물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공유저작물에 대해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공급자가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여, 저작권과 충돌될 경우에는 저작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이 공급자가 공유저작물에 대해 수요자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은 공급자가 공유저작물과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는 공유저작물 제도가 자기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로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공유저작물 제도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이며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유 저작물 보상과 활용에 대해서는, 공유저작물 기증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보상이 주어질 때 기증을 하겠다는 등의 인식을 보여 공유저작물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상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동일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고 그 필요성, 활성화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공급자 측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저작권, 보상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의 확대가 기존 저작권 공급자들의 이해를 보장하는 형태가 되고, 적절한 보상 등이 사회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저작권 증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질 때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의 사회적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유저작물 제도를 보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and 공급자의 수요에 적합하게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공유저작물 제도에 대해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필요성을 느끼고 또 공유저작물 제도가 공급자에게 보다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공유저작물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은 수요자, 공급자 측에 대해 차별성을 두고 있지 않다. 공급자 측

에 보다 중점을 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t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로서 그러한 인식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설문 문항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타당성 검증, 인과관계 분석 등이 필요한 이러한 관계 분석이 추후 연구 과제로서 제시된다.

참고 문헌

[1] 김해중, 박종우, 조동혁, “공유경제 서비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214-225, 2016.

[2] 이유우, 고민정, 한주희, “시니어 인력의 직무만족: 지식공유 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2호, p.586-592, 2015.

[3] Lawrence Lessig,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PLC, p.1-10, 2008.

[4] Don. Tapscott and Anthony D. Williams, *WIKINOMICS: How Mass Collaboration Changes Everything*, London: Atlantic Books, p.33, 2008.

[5] Rachel Bostman and Roo Roters,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HarperBusiness Press, p.55, 2011, 이은진 역, *다음 10년을 지배할 머니 코드: 위 제너레이션*, 파주: 도서출판 푸른숲, 2012.

[6] Geoff Mulgan, *Social Innovation: what it is, why it matters and how it can be accelerated*, London: The Basingstoke Press, p.99, 2007.

[7] Philip R. Kotler, *Up and Out of Poverty: The Social Marketing Solu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p.1-8, 2009.

[8] 문병기, “경제적 합리성의 재해석: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4호, p.348-349, 2010.

[9] 김현철, *공유경제 제주도입의 정책적 시사점*, 제주발전 연구원 정책이슈 브리프, 2014.

[10] 한상연, 강현민, “지방정부 부서간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대 동대문구의 사례,”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p.99-102, 2007.

[11] 김동욱, 윤건,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3권, 제4호, p.54-62, 2010.

[12] 박준기, 윤정인, 이정우, “IT 서비스 품질과 관계 품질이 지식공유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7호, p.355-362, 2010.

[13] 안지혜, “인터넷 파일공유에 관한 담론 과정 분석과 저작권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4권, 제3호, p.109-112, 2010.

[14]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15] 공유마당 홈페이지, <http://gongu.copyright.or.kr>

[16] Internet Archive 홈페이지, <https://archive.org>

[17]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www.kogil.or.kr>

저 자 소 개

민 지 애(Jiae Min)

정회원



▪ 2016년 2월 : 국민대학교테크노 디자인대학원 박사(콘텐츠디자인)

<관심분야> : 공유저작권, 콘텐츠 디자인

전 승 규(Seung Kyu Jeon)

정회원



▪ 현재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스토리텔링, 콘텐츠디자인